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주) 소유 지분 안산시 환원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737

발의일자 : 2008. 8. 29
발 의 자 : 이민근 의원
외 19인

1. 주 문

○ 안산지역에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주)는 '95년 우리시 조례에 의거 설립된 기업으로서 현재 우리시 관내 4만7천여세대의 아파트와 업무용 빌딩을 대상으로 지역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96년도에 보다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난방 선도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경영권을 이양하여 '04년부터 지속적인 경영흑자가 발생되고 있는 우량기업으로서 현재까지 저렴한 열공급과 질 높은 서비스로 이제는 우리 안산시민의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시민의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안산도시개발 현 지분구조>

한국지역난방공사(51%), 안산시(42%), STX에너지(5%), 농협중앙회(2%)

○ 최근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생활의 기초적 필수품인 가스, 전기, 수도, 의료보험 등 4대 분야에 대해서는 민영화 계획이 없으며,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민영화 할 수 있는 부분만 민영화 할 것**」으로 기본입장을 밝힌바 있음.('08.6.19, 대통령 특별담화)

○ 이에 안산시의회는 정부의 안산도시개발(주) 선진화 계획이 안산시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수립되기를 바라며 안산 시민을 대표하고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표명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안산도시개발(주)는 열병합발전소를 통하여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에너지기업으로 시민들의 공공요금 부담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현재에도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우리시민의 재정부담으로 운영되고 우리시를 기반으로 한 독점적 사업자를 정부가 단지, 공기업의 자회사라는 명분으로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할 경우에는 지자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심히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음.

○ 가계부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난방부분이 민영화 될 경우, 정부의 가격 통제력이 약화될 것은 자명하며, 민간기업은 독점력을 이용한 이윤추구와 안산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운영구조로 실질적인 최대 피해자는 우리시민이 될 것임.

○ 불가피하게 정부의 주도하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 지분을 매각할 경우에는 직접적인 민간이양을 통한 민영화 보다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산시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회사의 설립목적인 주민복지 향상과 자주재원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할 것임.

○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74만 안산시민의 대변자로서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계획 수립 시 우리시민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안산도시개발(주) 소유 지분 안산시 환원 촉구 건의안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계획"에 따른 안산도시개발(주) 선진화계획 발표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민간으로의 지분 매각을 반대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 소유지분을 설립주체인 안산시에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안산도시개발(주)는 안산시 조례에 근거하여 안산시에 의해 시민의 재정 부담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안산도시개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적법하고 유효한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유한 지분은 당초 회사 설립주체인 동시에 현재까지 적자를 감수하며 경영권에 참여한 안산시로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며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지자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심히 부당한 행위이며 안산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둘째, 지난 '96년 우리시가 안산도시개발(주)의 지분 일부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매각하여 경영권을 일임 한 것은 지역난방 사업경험이 일천하여 우리 안산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열공급을 기하기 위함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영이익을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천명하며 정부정책에 의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소유한 안산도시개발(주) 지분을 매각할 경우 반드시 원래 주인인 안산시에 환원하여야 한다.

셋째, 흑자경영이 지속되고 전국최초의 지역냉방 공급 등으로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안정적 성장 기반이 조성된 안산시민의 기업인 안산도시개발(주)를 민간에 경영권을 이양하는 것은 안산시민의 경제적 이득을 민간에게 양보하는 것이고 민간에게 경영권 이양시에는 비싼 열요금으로 안산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 될 것은 명백하다. 이에 시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선진화 계획이 수립되기를 74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 8. 29

안산시의회의원 일동